

# 절대기쁨과 절대기도의 망대를 세운 빌립보교회 -복음으로 여는 빌립보서- 시편 18:6, 빌립보서 4:6

정윤돈 목사님

\* **시18:6**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 **빌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진 인류가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이 있을 때 기뻐하기 어렵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총 네 장의 짧은 성경이지만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나 ‘기뻐하라’는 단어가 총 16회 나온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쓴 편지다. 당시 로마는 옥에 가두기 전에 심하게 때를 때리고 가뒀다. 40번 때리면 죽으니까 바울은 40번에서 한 번 감한 때를 맞았다. 바울은 그 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한다. 제가 C국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꺾박당하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꺾박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냐’는 얘기를 하시더라. 우리는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할 때가 많다. 지난 번 스리랑카를 다녀오자마자 목사님 아홉 분이 감옥에 가셨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계속 전도를 하시고, 사흘 동안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다르다. 바울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다르다. 우리는 내 자리, 인정, 먹고 사는 것, 건강, 자녀, 사업을 걱정하고 갈등하는데 그곳에는 참 행복이 있을 수 없다. 땅끝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고민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고민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 걱정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를 드리라고 했다. 자녀가 기준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경쟁을 위해서 살면 세계 1등해도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기준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헤매다가 길지도 않은 인생이 끝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기뻐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빌립보교회의 상황이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기뻐하라고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고 있다. 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기쁨이 없이 사나. 그런 분들은 일주일 금식해 보시기 바란다. 배불러서 그렇다. 쓸데없는 고민하고 계시다면 금식을 하셔라. 다른 고민들이 없어지고 배고픈 생각만 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란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았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다 제가 짊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켜보면 그게 다 저에게 축복이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에는 거저 되는 게 없다. 땀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감옥에 가고 가정과 직장과 건강의 문제가 있더라도 삶의 목적이 세계복음화에 있기 바란다.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현장에 갈 때 어떤 눈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사람과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 바울은 세계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지 못한다. 여러분의 걱정은 세계복음화와 제자에 있어야겠다. 제자는 따라오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먼저 강단의 증인이 되어서, 강단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거해야 한다. 강단의 흐름을 타고 응답을 받아야 지속해서 전도할 수 있다. 전도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계속 만나다보면 진짜가 나온다.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게 정상이다. 모두 빌립보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시기 바란다.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기쁜 일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문제 앞에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우시기 바란다. 메시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메시지만 실천하면 다 나에게 맞는 메시지가 된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고 여러분은 응답을 받아라. 여러분이 살리고 여러분이 나라와 직장과 현장을 살려야 한다.

오늘은 빌립보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 빠져 있던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다.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전제들은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서를 써서 보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 에바브로디도는 동역자이면서 빌립보교회의 담임목사였다. 교회가 부흥은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여러 문제 때문에 몸이 아팠지만 바울은 전도하다가 때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1차적으로 에바브로디도에게 했다. 사명자이고 교회 있고 부흥하고 있으면서 그걸 힘들다고 하냐는 것이다. 일단 응답 받아야하는 게 목회자다. 목회자가 받을 가장 큰 응답은 좋은 부목사님들을 키우는 것이다. 교역자가 없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구역에서도 제사장이 중요하다. 구역은 제사장을 항상 세운다.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 직장에서든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의 기회를 보라.

## 1. 빌립보교회의 설립과정과 특징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하고자 한다.

(1) 먼저 사도 바울의 부르심부터 빌립보교회 개척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사도 바울은 스테반 집사의 순교현장에 처음 등장한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청년 사울이 돌로 스테반을 죽이는 장면이다. ② 그 후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주도하던 중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③ 충격을 받은 사도 바울은 십수 년 동안 아라비아와 고향에서 지내게 된다. ④ 그러던 중 바나바의 소개로 안디옥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 기간동안 큰 역사를 이루고 다시 안디옥교회로 돌아온다. ⑥ 그리고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따로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드로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빌립보가 속해 있는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네압볼리 항에 도착하여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된다. ⑦ 여기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와 잠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를 만나게 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보교회가 개척되게 되었다. 성령인도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사명자를 만나고 팀을 만든다. 항상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있으면 전도와 선교 관점으로 현장을 보게 된다. 바울도 사명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을 것이다. 제가 20대, 30대 때 항상 청년들과 함께 지내며 데리고 살았다. 이제선 진짜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이다.

(2) 다음은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과 교회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빌립보라는 도시의 명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②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방문할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 ③ 그리고 당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성이었다. ④ 특히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장교나 군인들에게 로마시민권을 주면서 많은 로마인들을 이주시킨 도시였다. 로마가 세계를 장악해야

하는데 로마와 빌립보의 위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시민은 아니지만 용병으로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빌립보에서 살면 시민권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⑤ 여기서 예비던 제자 루디아를 만났다. 루디아는 소아시아 출신의 '자주 옷감장사'를 하던 여성산업인이었다. 로마 군인들과 황제들이 쓰는 고급 옷감을 팔았던 여성산업인이다. ⑥ 즉 빌립보교회는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중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 그리고 로마에서 이주해 온 지식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다. 문체와 다양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 2. 빌립보서의 문제들과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말씀과 답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 번째 문제는 전도를 하면서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①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성도는 '투기와 분쟁' 속에서 전도를 하였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자체가 틀리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지 않고 분열하고 경쟁한다. ②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도사역을 하였다. 이것도 착한 착할 뿐이지 착한 사람은 없다. 겸허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특이한 대답을 하고 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는 "그러면 무엇이냐 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한다.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렇듯 저렇듯 교회를 위해 하니 기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전도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보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었을까? 하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라는 말이지 계속 싸우면서 하라는 말이 아니다. 바울의 진짜 심정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철저히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복음이다. 온전한 사람은 없고 다 부족하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과 중간사역자들이 중요하다. 아무리 박사 학위가 많아도 교회에서는 다 어린이가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알려줘야 한다.

(2) 두 번째 문제는 엘리트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자신들의 지식과 배경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는 "나는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배나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교회에는 율법주의를 자랑하는 유대인과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은 초동학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란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불신앙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제가 강단에 순종하려고 수없이 말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강단을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근본문제가 박살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된다. 겸손하게, 진정으로 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은 완전한 복음의 내용이다. 완전복음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왕권을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이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 세상의 대통령도 사면 복권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법적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매를 맞으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안 된다. 우리는 일반 달란트를 탕감 받은 자다. 백 데나리온을 빚진 건 분명히 빚진 게 맞다. 그러나 일반 달란트를 탕감 받은 입장에서 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없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3) 세 번째 문제는 빌립보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두 여자 중직자들이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바울을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에 보겠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독교를 믿는다고 로마와 유대인에게 핍박당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 모든 걸 잃고도 오직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목숨 걸고 모였는데도 그 외중에 인간관계에서 갈등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갈등과 문제 때문에 빌립보서를 쓰게 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제게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큰 응답을 주셨다. 큰 문제일수록 큰 응답이다.

(4) 네 번째 문제는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멈추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 쫓대가 있다. 일본의 300개 교회를 두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제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재직용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70개 나라를 다니며 응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가지 않아도 일단 계획하라.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 우리의 절대목적이 전도와 선교, 현장 치유다. 우리들의 절대목표와 '절대쫓대'는 일천만 제자, 237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다. 오직 이 쫓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이것을 위해서 실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들이 7.7.7기도의 성취,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 70지교회와 십자가의 도인 구원을 길을 매일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준비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준비되면 복음 받을 사람들이 계속 만나진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여정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①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② 나에게서 어려움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③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④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나와 현장을 바꿔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⑥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오늘 어디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사명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말씀을 주셔서 오히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절대 메시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현장에 말씀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